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뵈옵

마 28:16-20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 새벽에 무덤에 왔던 여자들에게 “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다 (마 28:10). 갈릴리는 주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며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훈하신 곳이며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이었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곳이었다. 부활하신 주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그 곳으로 부르셔서 전도의 사명 주기를 원하셨다.

1. 주님의 부활하심의 증거

열한 제자는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산에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옵고 경배하였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아직 그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그때에 그런 사람이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더러 있다.

예수께서 과연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가? 그렇다. 성경은 그의 부활의 증거들을 많이 제시한다. 마태복음 28장은 네 개의 증거들을 기록하였다. 첫째는 천사들의 증언이며, 둘째는 여자들의 빈 무덤 확인이며, 셋째는 길에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심이며, 넷째는 갈릴리에서 열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이다.

그 외에도, 다른 세 복음서들, 즉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다른 증거들도 제시한다. 또 사도행전도 제자들이 주의 부활을 증거한 사실을 말하고,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도 주의 부활에 대한 여섯 개의 증거들을 제시한다(고전 15:5-8).

이와 같이,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

고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풍성하게 증거한다. 예수님의 사도들과 초기의 제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들을 들었고 그의 기적들과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보았고 증거했다.

2. 주님의 부활하심의 목적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기 위한 것, 즉 자신의 신성(神性)과 구주 되심을 증거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공개적인 전도 활동을 하실 때에도 많은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것을 최종적으로 증거하셨다.

그래서 주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천사의 증거를 듣고 두려움과 기쁨으로 돌아오다가 길에서 주님을 만나 뵈었을 때 그들은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경배하였다. 또 열한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 예수께서 명하신 산에 이르러 그를 뵈었을 때에도 그들은 주께 경배했다. 그들이 주께 경배한 것은 그들이 주를 신적 존재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주께서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다.

또 주께서 열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을 때, 그는 자신을 아버지와 성령과 나란히 언급하심으로써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구별된 인격들이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자신이 그들과 동등한 신적 인격이심을 증거하셨다.

또 그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없고, 오직 신적 구주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신적 구주이시다.

이와 같이, 주님의 부활은 그의 신성과 구주 되심을 밝히 증거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하였다(롬 1:4). 또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공회 앞에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고 증거했고(행 5:30-31),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전도할 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고 증거했다(행 17:31).

3.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 오늘 본문 18절 이하를 다시 보면, 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주 예수께서는 네 가지 내용을 명하셨다. 첫째는 ‘가라’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고, 셋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고, 넷째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다.

주 예수님의 명령은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었고 그것은 오늘날 주께서 교회에 세우신 사역자들, 즉 목사들과 선교사들에게 일차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물론, 모든 일반 신도들도 이 일을 위해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교회에 주신 최대의 임무이며 교회의 사명(mission)이다.

첫째로,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하셨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느 곳이든지 가야 한다. 영혼들을 찾아가서 전도해야 한다. 물론 오는 사람도 가르치지만, 오지 않는 사람에게도 가야 한다.

둘째로, 주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하셨다. 제자란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행동을 본받는 자를 가리킨다. ‘제자를 삼는다’는 원어(마테뮬오 μαθητεύω)는 ‘가르친다’는 뜻이다(KJV).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제자를 삼는 것은 사람의 제자를 삼는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다는 뜻이다. 주 예수께서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고 말씀하셨다(마 23:8).

전도 대상은 모든 족속이다.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다.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다. 오늘도 그것이 필요한가? 그렇다. 겨우 약 백 년 전에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다. 아직도 세상에는 복음을 받지 못한 민족들이 있다고 한다. 주 예수께서 명하신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국내전도자들 뿐만 아니라, 또한 해외선교사들도 많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는 이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셋째로, 주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다. ‘이름으로’라는 원어는 ‘이름 안으로’라는 뜻으로 영적 연합을 가리킨다. 세례는 죄 씻음과 구원의 표시요 하나님과의 연합의 표시이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죄 씻음이다.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는다. 죄 씻음 받음이 구원이다. 죄 씻음 받음은 세례를 통해 상징되고 확증된다.

넷째로, 주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다. 전도는 단지 복음의 선포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어야 한

다. 전도는 일차적 단계이며, 전도로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많은 가르침이 필요하다. 전도와 목회는 구별되지만 또한 연결되어 있다.

주께서 명하신 내용은 사도들을 통해 성경에 다 기록되었다. 오늘날은 성경만이 권위를 가진다. 신약시대에는 목사들의 독자적 권위는 없다. 그들은 오직 성경에 충실해야 할 뿐이다. 여기에 성경 해석의 중요성도 있다. 성경의 뜻은 애매모호하지 않고 단순명료하다.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 그것이 성경에 충실하는 것이다.

가르침의 범위는 ‘모든 것’이다. 육적으로 편식이 좋지 않듯이, 영적으로도 그러하다. 모든 말씀을 골고루 배우고 섭취해야 한다. 교리도, 윤리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모든 교리들, 즉 하나님, 사람, 예수 그리스도, 구원, 교회, 내세에 관한 모든 교리들을 배워야 하고, 또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관해 십계명의 모든 내용들을 배워야 한다.

가르침의 목적은 실천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이다. 성경은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해야 할 내용이다.

4.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

주께서는 전도하라, 세례를 베풀라, 교훈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약속의 말씀도 주셨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신약시대의 목사들과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된다. 주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실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가리킨다고 본다. 요한복음 14:16, “그가 또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의 든든한 보장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보장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의 부활을 본 자들은 그의 부활하심을 증언했고 그 증언들은 신약성경에 기록되었다.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밝히 증거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어떤 자들처럼 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본 증인들의 증언들인 신약성경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해야 하고, 또 그럼으로써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었음을 알아야 한다. 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천국을 떠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출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고난과 피흘려 죽으심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

또 우리는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기억해야 한다. 주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다. 이것은 주의 제자들, 곧 신약교회에 주신 주의 명령이었다. 이것은 교회의 최대의 임무, 곧 사명이다. 또 이것은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임을 보인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여기 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의 명령을 이해하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의 일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또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 인생의 삶은 수고로운 여정이며 성도의 신앙생활과 전도의 사명을 수행하는 길은 영적 전쟁과도 같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어려운 일들로 낙심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신다는 주의 약속을 믿고 낙심치 말고 담대히 살아가야 한다.